

2024. 5. 2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

동행사업담당관

이대희

02-2133-9400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5쪽

동행사업1팀장

정경란

02-2133-9401

## "장애인·어르신 이동 문턱 낮춘다"...서울시, 음식점 등 생활편의시설 경사로 설치지원

- 시민 누구나 제한 없이 생활편의시설 접근을 목표로 「모두의1층×서울」 5월부터 개시
- 4.30.(화) 시-KB증권-비영리단체 ‘모두의1층 이니셔티브’, 기부금 전달 및 업무협약
- (서울시·모두의1층 이니셔티브) 경사로 설치·공감대 확산, (KB증권) 설치비 7천만원 기부
- 시, “이동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”

- 서울시가 시민·기업·단체와 협력해 장애인, 어르신, 유아 동반자 모두 제한 없이 일상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, 올해 5월부터는 장애인, 어르신 등 이동약자는 물론, 시민 누구나 1층에 자리한 생활편의시설을 편하게 접근하고,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「모두의1층×서울」 프로젝트를 시작한다.
- 시는 지난해 ‘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’ 프로젝트를 통해 화장실 정보 2,500여 건을 수집하여 ‘스마트서울맵’으로 제공하는 등 이동약자들의 크고 작은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.

- 그간 음식점, 편의점,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가에 존재하는 문턱, 계단은 휠체어 이용자, 유아차·캐리어를 끄는 시민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꼽혔다.
-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진정 사례로 접수된 건 중 시설물 등 접근성과 관련된 내용이 58.9%를 차지할 정도로 작은 단차가 주는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에 서울시는 KB증권, 비영리단체 ‘모두의1층 이니셔티브(준)’와 협력을 통해 5월부터 편의점, 베이커리, 카페, 음식점, 잡화점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생활편의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한다.
-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(화) 오전 10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, KB증권 임경식 상무, 모두의1층 이니셔티브 임성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「모두의1층×서울」 기부금 전달 및 업무협약식’을 가졌다.
-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▲이동약자의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제약하는 문제의 공동해결 ▲경사로 설치 지원대상 발굴 및 경사로 설치 지원 ▲경사로 설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유도, 대시민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.

- 협약에 따라 시는 상점 앞 경사로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. 생활편의 시설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점주, 프랜차이즈 기업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,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이동약자를 위한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배려,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.
- KB증권은 경사로 설치를 위해 7천만 원을 기부하여 이동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지원한다.
  - KB증권은 “세상을 바꾸는 금융,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목표” 아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소통이 담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 오고 있다. 특히 사회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가치 창출 및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현 시점의 사회적, 환경적 이슈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진행해오고 있다.
- 모두의1층 이니셔티브(준)는 서울시와 「모두의1층×서울」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며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와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.
  - ‘모두의1층이니셔티브(준)’는 공익변호사단체 사단법인 두루(이사장 임성택), ‘턱없는 세상’을 위한 사단법인 무의(이사장 홍윤희), 브라이트건축사사무소 (대표 이충현)가 이동약자 접근편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립을 준비중인 비영리단체로서
  - '23년 성수동 일대를 중심으로 ‘모두의1층’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이동약자가 공중이용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이동약자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.

- 조미숙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은 “서울시는 이동약자들도 편의점, 음식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상점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「모두의1층×서울」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.”며 “이번 협약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를 민관이 함께 이해하고 전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. 서울시는 이동약자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붙임 : 업무협약 사진



(좌측부터) KB증권 임경식 상무, 서울시 조미숙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, 모두의1층이니셔티브 임성택 대표